

“국가산단 유지·보수 정부가 적극 나서야”

군산 등 15개 지자체 창립총회 제도개선·국비지원 촉구 키로

군산을 비롯,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단 유지·보수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열악한 재정현상 국가산단 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따내기 버거운 만큼 산단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을 포함한 국가산단 15개 지자체는 지난날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산단 유지·보수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협의회를 통해 전국 국가산단의 약 70%가 도로시설 등 기반시



군산을 비롯,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산단 유지·보수 정부지원 촉구 키로 협의회 창립 총회를 열고 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군산시 제공>

설이 노후화돼 매년 유지보수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산시의 경우 시외국가산단단지의 경우 매년 80억원의 유지보수비용을 투입하

고 있으며 군산 국가·국가2산업단지에 대해서도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화된 시설 보수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재정현상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부족으로 국가산단 유지 보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자칫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개 지자체들은 이같은 점을 감안, 창립총회를 계기로 국가산단 운영에 대한 법·제도 정비, 국비 지원 등 산업단지 정책 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지역 국가산단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으로 인해 침체된 현실에서 이번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산단 활성화 및 산단 지속발전,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susu@



지난해 10월 황룡강변에서 열린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에 관광객 98만여명이 다녀갔다. 전남도는 장성군 종합감사에서 노란꽃잔치를 수범사례로 꼽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전남도 우수사례 선정

10억 송이 ‘꽃강’ 눈길

98만 7천명 다녀가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이하 노란꽃잔치)가 전남도 감사에서 수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4일 전남도와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장성 황룡강변에서 열린 ‘노란꽃잔치’가 전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노란꽃잔치는 노란색 컬러 마케팅으로 ‘엘로우시티 장성’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다.

또 도심형 생태하천으로 황룡강이 재탄생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슈퍼스타Y·

실버재능잔치 등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연출해 호평을 받았다.

장성군은 축제를 위해 황룡강변에 10억 송이 꽃을 심어 전국에서 가장 긴 ‘꽃강’을 조성, 관광명소로 만들었다. 식재면적이 12만㎡에 달했으며, 17일간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이 98만7430명이었다. 축제 관람 요구가 높아 장성군은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간 축제장소를 연장 개방했다.

장성군은 노란꽃잔치에 쿠폰제를 도입해 관광객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군은 축제기간에 1만원짜리 쿠폰 1만 5000장을 발행, 1억37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일반적으로 쿠폰 1장에 현금 5만원 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쿠폰 발행으로 8

억여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노란꽃잔치는 군민이 함께 준비하고 참

여한 ‘거버넌스형 축제’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각종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성 군민 수는 3890명에 이른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는 ‘노란꽃잔치’가 지닌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감사관실은 재난방송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의 자연친화적 숲길 조성, 보건지소 탐방과 함께하는 경로당 운영, 농업인 월급제 추진, 수출활 생산단지 조성 및 러시아 첫 수출, 전국 최초 건축진흥특별회계 제정 등도 장성군 수범사례로 꼽았다.

/박정욱기자 jwpark@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상생·맞춤형 지원 등 마을기업 살리기 추진

남원시 간담회 성료

남원시가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일 시청 회의실에서 마을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남원시와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주관, 6개 마을기업 대표와 사무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2018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계획안을 설명하고 마을기업 간 교류를 통한 협업과 상생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그동안 마을기업의 운영상황 등을 진단해 판로 개척과 자립능력을 키우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영컨설팅 서비스 지원, 마을기업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줬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해 마을기업이 더욱더 성장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고 뜻을 모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건설한 마을기업으로 성장해 지역발전이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박정욱기자 bs8787@



정읍시 도시재생·활력 사업 발굴

‘주민 공청회’ 내일 개최

정읍시가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정읍시는 6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 된 지역(수성, 장명, 시가동 일원)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사업의 비전 인 ‘지역특화산업(떡·차·면·술)으로

살리는 시민경제도시, 정읍’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청회 개최 후 3월 중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이 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공모에 선정 돼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250억원을 확보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졸업시즌 맞아 ‘학교폭력 예방’ 홍보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오는 7일까지 ‘건강한 졸업식 정착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사진〉을 펼친다.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일 1388청소년지원단과 함께 고창고를 시작으로 지역 중·고교 졸업식에 참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졸업식 정착 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들어갔다.

이번 캠페인은 졸업식 후 들뜬 분위기에 청소년 학교폭력과 탈선·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졸업식 행사장과 운동장, 교문 앞 등에서 홍보물품을 배포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졸업식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고창군이 운영 중인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인 ‘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에 따라 진행됐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약정으로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이 사업에서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창=박형진기자 phj@

세일골

“자연·사람 공존하는 국립공원 조성”

강재구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국립공원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재구(52) 신임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은 “국가 자연생태계의 핵심인 국립공원을 미래 세대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보전하겠다”면서 “탐방객은 자연과 역사체험을 통해 심신수양을, 지역사회와는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출신인 강 신임 소장은 1996년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입사해 종복원 기술원 및 공단본부 총무부, 홍보실, 방재관리부장, 안전대책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덕남동 - 임야,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시세 - 평당10만 급매 - 평당7만원
- 문의. 010-3605-50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서·전원주택지

- 전북 정읍시 첨단산업단지 3300여㎡ 평당 42만원
- 장성 북이면 장성마을 11953㎡(3615평) 매도 6억4천
- 완도 약산면 득암리 바다집 2481㎡ 민박집(분할) 2억4천
- 장흥 수문해수욕장 판서 등 적합 2346㎡ 분할가능 평당 70만원
- 장성 북이면 백암골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소방도로코너 2층 상가주택 93㎡ 집 94㎡ 1억2300
- 북구 문암동 한국아파트 165㎡ 전망좋은 13층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5백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4천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라인아파트부근 758㎡ 다세대 등 적합 7억
- 목포시 다세대 33평 32세대 허가 3023㎡ 13억7천
- 월산동 월산아파트옆 664㎡ 주택·사찰 적합 4억6천
- 담양군 창평 의환리 9544㎡ 공장·창고 적합 평당 40만원
- 함평읍 물마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5억

상가주택

- 서구 한진 건너편 소방도 대지 99㎡ 신축2층건물 100㎡ 3억6천
- 백운동 빌라 대지 314㎡ 건물 527㎡ 매도 7억5천
- 양동 모텔·카페·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12억5천
- 월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유동 삼성병원부근 대지 598㎡ 건평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 월산동 농성초교 건너편 대지 132㎡ 미트와 주택(3층) 189㎡ 4억6천
- 주월동 우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해남 현산면 전 2752㎡ 공시지가 매도 1700만원
- 장성 북이면 수성리 전 2136㎡ 창고 등 적합 4500만원
- 신안군 압해읍 북동리 전원주택등 적합 3206㎡ 5300만원
- 중흥시장 부근 4층 상가주택 177㎡ 건물 482㎡ 2억7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보증금, 월1,200만 포함)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 500㎡ 매24억
- 나주시 성북동 1층상가 대 489㎡ 건 322㎡ 매 7억2천
- 양산동 원룸 대 300㎡ 매7억8천(보1억, 월4백만, 안집)

토지

- 서구 서창동 대지 2중주거지역 1,760㎡ 매 13억6천
- 광신구 남산동 대지 1중주거지역 421㎡ 매1억5백만
- 임암동 효천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화정동 대지 준주거지역 1,000㎡ 매 50억
- 산정동 생산녹지,창고용지 3,810㎡ 매 20억
- 광신구 소촌동 자연녹지 3,800㎡ 매 2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신구 비아동 자연녹지 6,130㎡ 매 3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신구 우산동 상업지역 코너지 대지 612㎡ 매 12억
- 광신구 문남동 생산녹지 3,000㎡ 매 19억2천(물류창고·야적장 적합)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모텔허가 득)
- 남평읍 상곡리 천.임야 9,240㎡ 매 8억4천(전원주택부지 적합)
- 도곡면 원화리 계획관리지역 내지 5,355㎡ 매 33억(요양병원적합)
- 담양군 대전면 생산리 1중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창고적합)
- 담양군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 금천면 석전리 계획관리지역 대지, 답 2,240㎡ 매 4억6천
- 정읍시 신정동 전 3,300㎡ 매 5억원 (전원주택, 가든식당 적합)
- 고흥군 송림리 전 17,000㎡(약 5천평) 매 3.3㎡당 2십2만원 (토목공사원로, 비닷가토지, 남동향, 편선, 커리안, 전원주택, 태양광적합)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신구 정덕동 롯데마트 부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6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엔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